

경농, 농림과학기술대전 대통령상 수상

(주)경농 (대표이사 이병만)이 환경친화적인 생력형 작물보호제인 주먹탄 점보제의 연구실적 및 보급활동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9월 27일 aT센터에서 거행된 농업과학기술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농은 또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되는 농림과학기술대전 전시회에도 참석해 자사의 환경친화적이고 생력적인 우수제품을 전시했다.

경농은 전시회를 통해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고려하여 손쉽게 논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형인 '주먹탄 점보제(특허번호 제0418425호)'를 비롯하여 첨단과학기술인 신선도 유지



제 '스마트프레쉬' 식물활력 강화제 '누네띠네', 친환경 작물보호제 '푸른손' '은하수' '왕중왕' '보검' '베스탑'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촉진제 '제누스' 토양수분 유지제 '제바' 등 친환경 경제품을 선보였으며, 농업과 환경의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경영컨설팅기업으로서 농업인과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다짐했다.

농림부 차관보에 金達重씨



정부는 지난 9월 4일 농림부 차관보에 金達重(53)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임명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金차관보는 1978년 임용 이래 농림부에서만 근무한 정통 농업관료

로, 기획분야를 두루 거친 농림부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힌다. 업무 처리가 치밀하고 합리적인 성격이어서 농업·농촌종합대책, 농협 개혁 등 농정현안을 잘 해결하고 농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또 지난 2002~2004년 축산국장 재직 때는 가축방

역업무의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인 최승오 여사(52)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주요 이력을 보면 △전북 정읍 △중앙대 행정학과, 동대학원 △행정고시 21회 △국립종자관리소장 △농업정보통계관 △공보관 △축산국장 △기획관리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동부한농, 전사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주)동부한농과 동부정밀화학(주)이 전사 임직원 1천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난 9월 23일 천안 에스원 연수원에서 노사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동부한농, 우수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9. 22, 농업인 도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앞장

(주)동부한농 (대표이사 사장 최 성래)이 농업전문기업 최초로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증기관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동부한농을 GAP 분석성적서 인정기관으로 지정 한데 이어 9월 22일 우수농산물인증기관(GAP, 제 20호)으로 지정했다. 농관원은 동부한농이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전담조직, 인력, 관리능력, 사업계획, 분석시설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함에 따라 GAP 민간인증 기관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동부한농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전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쌀·콩 등 식량작물을 비롯해 채소·청과 까지 인증대상 농산물 96개 전 품목에 대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에 이르기 까지 110개 우수농산물관리 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GAP 분석성적서 인정기관인 분석팀을 통해 우수농산물 인증에 관련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분석하게 된다.

동부한농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해 온 명을재 박사는 “동부한농은 우수한 농업 전문인력,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을 이미 확보한 우수농산물인증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관이며 농업인의 우수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부한농의 GAP인증기관 지정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한국 농업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 노사관계를 정립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동부한농 최성래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끈끈한 동료

애로 서로의 땀을 닦아주며 자신감을 재충전 하자”고 말하면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박재문 노조위원장도 “2회째를 맞은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의 뜻에 따라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고의 회사를 만들자”는 격려사를 발표했다. 개회식 마지막 순서인 화합선포식에서는 임직원들이 직접 써넣은 회사 발전 기원문을 풍선에 매달아 가을 하늘 높이 날려 보내기도 했다.

축포와 함께 고조된 분위기는 축구, 족구 결승 경기와 도전, 화합, 열정, 혁신 등 4개 팀의 신나

영일케미컬, 옥천연구소 준공식 가져

(주)영일 케미컬(대표이사 김용구)이 지난 9월 6일 충북 바이오농 산업단지(2014년 예정)에 인접한 충북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에서 연구소 준공식을 갖고 양질의 농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에서 약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공식에서는 공식 준공행사에 이어 최첨단의 유리온실 등 연구소 내·외부 시설 모두를 관람하였다. 영일케미컬 연구소는 총 1만여평의 부지에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수도·전작·과수포장 등 모두 9천5백여평의 시험포장과, 최신설비의 잔류연구실 및 제제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영일케미컬측은 “금번 시험연구기능 확충을 계기로 전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인에 대한 봉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제공하는 등 농약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는 응원전으로 계속 이어졌다. 대회에 참여한 동부한농, 동부정밀화학 임직원들은 명랑 운동회, 동부 기네스 게임, 팔씨름왕 선발대회,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숨은 재능을 선보이며 노사 화합의 신명 나는 시간을 만끽했다.

「청소년 환경대사」 바이엘 평택연구소 방문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대표이사 Andrew Orem) 평택연구소에 지난 8월 28일, 전국에서 바이엘 환경대사로 선발된 학생들과 환경연합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작물보호 제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병철 연구소장으로부터 바이엘의 역사와 연구소 현황, 그리고 우리 농산물과 농촌의 중요성 등에 대



해 설명을 듣고 연구시설을 견학하였다. 특히 하나의 작물보호제가 탄생할 때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는 줄 몰랐다고 그동안 작물보호제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바이엘 환경대사란 바이엘 그룹이 UNEP (United Nations of Environmental Programme : UN 산하 환경 기구)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청



한국쌀전업농 군위군연합회, 바이엘 대전공장 방문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대표이사 Andrew Orem) 대전 공장에 지난 9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군위군연합회 회원들이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객들은 작물보호제의 생산과정 전반에 대해 김용철 공장장으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각종 작물보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생산시설 견학을 마친 회원들은 화학공장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를 둘러 본 후 바이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예측 가능한 모든 사고를 가정하여 설치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역시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소년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한국 바이엘은 지난 2004년부터 환경운동연합과 공동 주관 하에 바이엘 환경대사 프로그램을 시작, 올해로 3번째를 맞이했다.

한국삼공, 신사옥으로 이전 새 출발

한국삼공(주)(대표이사 회장 한광호)이 지난 9월 25일 사무실을 용산 소재 신사옥으로 옮기고 새 출발 했다.

이번에 옮긴 신사옥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600평 규모로 각 부서별 독립공간과 개방공간을 조화시켜 업무편의와 임직원의 업무동선

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한 첨단 사무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883번지이며 전화(02-2287-2900) 및 Fax번호는 예전과 같다.

한국삼공은 “제2의 도약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사옥이전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효과 좋은 최고의 작물보호제와 친환경 제품으로 고객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Y

